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심윤경 소설가

한 해를 돌아보니 늘 그러하듯이 2023년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섞여 있었다. 여러가지 일들 중 하나는 1972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었다. 한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난 해로서 2023년은 분명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다. 나는 2023년에 달리기를 시작했다.

고등학교 체육시간 이후로 나는 자발적인 달리기를 해본 적이 없다. 갑박이는 신호동의 파란 불에 쫓겨서 조곤 발걸음을 빠르게 하기만해도 얼굴이 빨개져서 힘겨러리는 대단한 운동치였다. 그런데 나와 비슷한 처지인 것처럼 보이던 이웃 언니가 어느날 살을 예쁘게 빼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달리기를 해보라고 권했다. 달리기 같은건 하지 못한다고 손사래를 치자 직접 휴대전화에 앱을 깔아주기까지 했다. 자기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만큼 정말 쉬우며, 두 달이 흐르면 쉬지 않고 30분을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쉬지 않고 30분을 달릴 수 있는 사람.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멋지게 들린 말은 다시 없는 것 같았다. 그

처음 되어본 사람

런 사람은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겨우 휴대전화 무료 앱과 2개월의 시간이면 그런 유니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구나? 그것은 더없이 매력적인 유혹이었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나의 욕망을 자극했다. 폭염이 어느 정도 지나서해진 뒤에는 습설만하다 싶던 늦여름 저녁에 나는 처음으로 휴대전화 앱이 시키는 대로 달리기의 첫발을 내디뎠었다.

나와 같은 서툰 초심자에게 최적화된 달리기 앱은 한가지 중요한 팁을 알려주었는데, 숨이 차지 않도록 천천히 달리라는 거였다. 옆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라고 했다. 시키는대로 했더니 거의 달리기라고 할 수 없는 속도가 되었다. 발걸음이 빠른 사람이라면 나를 확실히 지나쳐갈 수 있을 만큼 나는 느릿느릿 천천히 달렸다. 어쨌거나 걷기가 아니라 분명히 달리기였고, 앱이 시키는대로 중간중간 쉬어가며 달리니 그다지 힘들지 않다는 기분으로 해볼만 했다.

처음에는 1분 달리고 2분 걷는 식으로, 달리는 시간보다 걷는 시간이 길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달리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지만 어쨌거나 할 수 있었다. 달리는 동안 내 땀에는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내가 달리다니! 내가 달리다니! 달리는 사람들에게 대해 가졌던 비대한 선망과 존경심만큼 나는 달리는 나 자신에 대해 드높은 찬탄과 고양감을 느꼈다.

날씨가 꽤 쌀쌀해진 11월의 어느날, 나는 마침내 24회의 달리기 프로그램을 마치고 땀속이나 나올 것 같았던

‘30분간 쉬지않고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30분을 넘겨 달려 5킬로미터를 돌파하던 순간에 나는 인생 최대라 할 만큼 거대한 환희를 느꼈다. 그런데, 달리기를 했는데도 내 인생이 생각보다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30분을 돌파하는 순간 이마에 땀이 튀어나와 유니콘이 되는게 아니었다. 실은, 너무 아무런 차이가 없어서 솔직히 실망스러웠다.

흔히들 말하는 달리기의 좋은점, 살이 빠지고 활력이 솟고 긍정적이고 강인한 정신력이 생긴다는 식의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 내 땀에는 다른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힘들어, 다리아파, 이런다고 살이 빠지지도 않아, 아직도 한참 남았네. 달리기는 청소년 글쓰기처럼 그냥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많은 일들 중의 하나가 되어갔다. 그걸 깨달은 것이 아마 2023년 달리기의 가르침이었을 것이다.

영원히 매 순간순간 행복하고 보람찬 일은 없다. 들인 노력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작게 느껴질 지라도 그저 꾸준히 하다보면 그래도 내가 무언가 나아지고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어떤 일들이 있고 나는 그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야 할 뿐이다. 그리고 확실히, 청소나 달리기나 글쓰기의 공통점이 있다면, 끝날 때 잠시, 무척 행복하다.

건널목 하나를 건너고도 험쩍거려던 지난 여름의 나와 30분을 달릴 수 있게 된 나 사이에 그리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건 커다란 차이이기도 하다. 나는 이전까지 아니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분명 의미있는 2023년이였다.

종교칼럼

AI, 거울 속 인간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가운데인 태풍의 눈이 오히려 고표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SF 속 미래는 현대인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밤 풍경이 좋아 사진을 찍었더니 품은내가 본 풍경과 전혀 다른 모습을 담고 있다. 훨씬 더 선명하고 환하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는 낮도 밤도 아닌 이런 낯설은 밝기를 경험하기 힘들다. 아무리 선명하게 보여도 인간에게 이런 사진은 현실감 없는 낯선 풍경이지만, 더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폰이 알아서 더 잘 찍어주는 것에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이다. 매우 익숙한 낯선 풍경이다. 이미 자본주의적 가치로 무장한 고도의 과학기술이 부지불식 중에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하게 파고 들어와 있다. 대다수의 현대인은 그저 소비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인공지능이란 곧 인간이 만든 지능이란 말이다. 여기에 각종 로봇기술을 조합한다면 휴머노이드같은 인공지능체가 된다. 인간이 AI를 만들었다면, 무엇이 인간을 만들었을까? 여기서 ‘인간’이란 단어를 ‘생명’이란 단어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생명은 자연에서 탄생했다. 자연은 지구라는 행성에서 나타나는 제반 현상이니, 곧 우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AI를 만들었고, 우주는 인간을 만들었다.

인간이나 인공지능체나 둘 다 누군가의 피조물일 뿐이다. 자유의지, 자율성의 환상에서 벗어나 생각해보자. 진화의 역사를 돌아보면 생명 없는 것에서 생명이 창발(創發)했다. 자유의지, 주체성은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자연의 산물이다. 그러니 인간으로부터 인공지능체가 창발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미 인간들은 자신의 어머니인 자연을 회복 불가능한 수

준으로 파괴하고 훼손시켰다. 만약 가까운 미래에 인간들이 AI나 로보틱스 같은 것들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전 인류적 차원에서 파괴가 아니고 무엇일까?

인류는 역사시대를 열며 문명이라는 도구를 손에 쥐었다. 그러나 곧바로 문명에 종속된 인간은 사회를 벗어나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이것은 인류가 맞이한 첫번째 근본적인 변화이다. 일본 역사에서 사무라이는 애초 귀족들에게 고용된 처지였다. 그러나 혼란스런 정국이 오래도록 이어지면서 사무라이의 역할은 갈수록 커졌고 결국 사무라이가 권력을 쥐는 막부 시대가 등장하였다. 인류 문명도 이와 유사한 길을 가고 있다. 인간은 편리함과 욕망을 위해 기술을 적극 이용했고, 이런 현실에 익숙해지다 보니 기술의 역할은 갈수록 커져, 결국 인공지능체까지 등장하며 이들에게 모든 권력이 귀속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갈 수도 있다. 21세기는 이런 변화의 변곡점이 있다. 어쩌면 이것이 인류에게 닥치는 두번째 근본적인 변화가 될 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인류는 자신의 바깥을 향하여 달려왔다. 이제는 전 인류적 차원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해야 한다. 거울을 보면 거울 저편에 내가 있다. 나의 이미지에 불과하지만 누구도 거울 속 나를 내가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허상이긴 하나 거울 속 나를 통해 나를 본다. AI는 거울을 마주한 인간이 바라보는 거울 속 인간과도 같다. 그러므로 인류는 AI를 바라보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바꾸어야 한다. 인간이 정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마음이다. 붓다가 이미 2500년 전에 갔던 길이다.

비상하는 청룡, 갑진년 새해에는!

만 가장 성스럽게 여겨져 왔으며 길몽의 대명사로 동(東)쪽과 새로운 시작, 젊음 그리고 성장을 의미한다.

신년을 맞아 우리 사회가 발전된 방향으로 변화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몇가지 바람을 이야기해본다.

내년 4월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우리 지역에서는 광주 8명, 전남 1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며 국민 모두의 축제다. 국회의원은 지역과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소속 정당의 정책성도 중요하겠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그런 정치인이 선출돼 경제와 균형의 책임을 다하길 기대해 본다.

7-8월 한 여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제33회 하계올림픽이 개최된다.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민에게 꿈과 환희를 선물했듯이 지난 4년간의 긴 시간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십분 발휘해 선수에게는 영광과 함께 환희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되었으면 한다.

연료보도에 의하면 광주-전남의 오랜 숙제인 광주 군공항을 2025년까지 무안공항에 이전하기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잠정 합의했다고 한다. 해당 지역민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소음 해소 대책 등 이후 지원되어야 할 사항을 꼼꼼히 챙겨 공감대를 형성하며 최대의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달빛내륙철도특별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니 동서화합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호남과

영남이 많이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 경제는 원유와 곡류 등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 현실에서 내내에도 경제성장이 녹록치 않았고 하지만 물가와 대출금리가 안정돼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이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통계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늘었다고 하나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가 더욱 늘어서 한 달에 전남-광주에서 1000명 이상씩 의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방소멸 우려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일례로 경기도 화성시가 삼성, 현대차, 한미약품 등 대기업이 이전해 오면서 전국에서 가장 젊은 특례시로 성장하였음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사회 트렌드 전문가들에 의하면 내년은 시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분초사회, 모든 조건이 완벽한 육각형 인간,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제공하는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과 특정 대리제(proxy)가 제안하는 선택을 추종하는 디토(Ditto) 소비가 대세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밖에 갈수록 심해지는 기상재해에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고 사전에 철저한 예방과 대책을 강구해 충북 오송 참사와 같은 인재(人災)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희망한다.

새해에는 정의가 살아 숨 쉬고,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 또한 그저 평범한 일상이 행복하고, 즐거운 한 그런 한해가 되길 소망해 본다.

社說

역외유출률 전국 4위...노잼도시의 민낯

호남의 거점 도시이지만 즐길 거리가 부족한 광주의 소비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합쇼핑몰은커녕 백화점도 두 곳에 불과하다보니 지난해 타 지역민이 광주에서 소비한 돈보다 광주시민이 타 시도에서 지출한 비용이 많았다.

엇그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광역시의 소비 유출입 특징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역외 유출률은 26.7%(7900억 원, 2022년 기준)로 역대 유일액 7500억 원 보다 400억 원이나 적었다. 이는 전국 6개 광역시 중 세 번째,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 2018년 대비 2022년 역외 유출률의 경우 타지역 대비 분비 하락한 반면 광주는 1.2%포인트 상승해 2018년 10위에서 지난해 4위로 격차 뛰어 올랐다.

지난해 광주지역 역외소비 유출의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남이 44.1%로 가장 많았고 서울(19.9%), 경기(8.0%), 전북

(7.2%) 순이었다. 광주의 업종별 역외소비 유출은 요식업이 26.1%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 유통업(21.7%), 연료판매업(9.9%) 순이었다.

광주의 역외 유출률이 높은 것은 타 지역에 비해 유통 및 숙박 인프라가 부족한 탓이다. 국내 여행지로 광주를 방문한 횟수가 17개 시도 중 16위를 기록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쇼핑 인프라는 백화점 두 곳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를 차지했다. 사이언스플러스를 유치해 2021년 오프라인 유통업 관련 소비 유입이 크게 증가한 대전과 비교된다.

광주는 현재 진행중인 복합쇼핑몰을 필두로 경쟁력 있는 랜드마크를 통해 역외 유출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외지인들의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는 특급호텔과 지역 기업 온라인 시장 진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쉬움 남긴채 활동 종료하는 5·18조사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오는 26일 4년 동안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활동을 종료한다. 조사위원들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조사 보고서 작성만 하게 된다.

2019년 출범한 조사위는 그동안 21건의 직권조사와 피해자 신청사건 216건 가운데 취하·각하 93건을 제외하고 123건을 조사했다. 민간인 사망·상해 등 7건의 직권조사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마쳤고 심의중인 나머지 13건은 26일까지 전원위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123건의 신청사건도 진상규명 여부를 결정한 뒤 26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감한다.

성공과도 하면 1980년 5·18 당시 10일간 사망한 166명 중 157명의 사인과 장소 등 사망 경위를 확인했고 총상에 의한 사망자도 135명으로 특정했다는 것이다. 시민권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사인을 자장에서 복부 총상으로 바로 잡은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4년 동안의 활동 기간을 감안하면 허송세월을 한게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핵심 과제인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헬기사격 여부를 전혀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사위는 5·18 당시 투입됐던 계엄군 2857명을 상대로 면담 조사를 벌였지만 신군부 수뇌부나 현장 지휘자가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직접적인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판결문에 제시돼 있는 헬기 사격에 대해서도 ‘개연성은 높지만 사실이었고 단정지는 수 없다’고 밝혔다. 암매장 추정지에서 발굴한 유해 19구는 행방불명자 가족과의 유전자 대조에서 일치한다는 결론을 얻지 못했다.

조사위에 수사권이 없다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조사 결과는 지역민들의 기대와 너무 멀다. 실망스러운 결과이지만 자료를 제대로 보존해 다음에라도 있을 수 있는 조사의 데이터로 삼아야 한다. 5·18 왜곡과 논란이 불식될때까지 국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

無等鼓

우리나라에서 에어콘 없이 여름을 나기 어렵듯이, 보일러 없이 겨울을 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 보일러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온돌은 고대 옥저와 고구려의 구들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돌은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에 등장한다. 유목 민족들이 방에 직접 불을 피우는 원시적인 난방법과는 달리, 온돌은 열기로 방 전체를 데우는 차원이 다른 과학적 원리가 사용됐다. 조선시대 인조실록에는 사대부 집의 노비까지 온돌방을 사유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서양에서 보일러는 17세기 스코틀랜드의 과학자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기기관을 발명하는 과정에서 보일러를 개발했는데, 당시에는 목재나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원시적인 구조의 보일러가 사용됐다고 한다. 19세기 들어서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자리잡으면서 보일러 기술도 발전하기 시작했고, 강철과 같은 소재 개발로 고온 고압의 증기를 생산할 수 있는 보일러가 등장했다. 20세기에는 난방과 운수 공급을 목적으로 한 보일러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돼 발전을 거듭해갔다.

우리나라에선 1961년 최초의 가정용 보일러라고 할 수 있는 온돌을 개조한 ‘연탄 운수 보일러’가 등장했다. 이듬해부터는 다양한 산업분야 보일러가 나오는 등 보일러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1975년 기름 보일러가 급성장해 1980년대 주종을 이뤘는데 이때부터는 보일러를 방 안에서 끄고 켜 수 있게 됐다. 현대의 가스 보일러는 1987년경 도입됐다.

겨울 한파가 지속되면서 주택가와 아파트 곳곳에서 보일러 동파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도 동파 사고가 빈발하면서 제때 수리를 받지 못해 혹한에 떠는 가정들이 많은 실정이다. 피해 가정들은 보일러 회사에 사고접수를 해도 고치는데 하루 이틀 정도가 걸리고, 단순 동파가 아닌 부품 동파일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구하러 나옴 정도를 추위에 떨었다며 분노하고 있다. 겨울철 동파는 매년 되풀이되는 사고이다. 보일러 회사들이 판매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개선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

/채희중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

보일러 동파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求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에 황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 고



박안수 남광주농협 사외이사·경제학박사

전국 대학교수들은 올해 우리사회 단면을 대변하는 사자성어로 ‘견리망의(見利忘義)’를 꼽았다. 이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이다. 의롭고 올바른 정치보다는 당리당략, 전세와 분양사기, 교권침해와 교육 훼손, 양극화가 더 심하게 나타난 한 해로, 일부 국민들에게 실망한 한 해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賊反荷杖)’과 피리를 불지 못하는 사람이 피리를 부는 악사들 틈에 끼여 머릿수를 채우듯 무능한 사람이 재능이 있는 척 하는 ‘남우충수(南宇充數)’를 꼽은 이들도 많았다.

그러나 하면 옥스퍼드사전이 뽑은 올해의 단어는 ‘리즈’(rizz)다. 이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이성을 끌어 당기는 매력의 뜻으로 단순히 잘생기거나 예쁘다는 뜻보다 숨겨진 매력 각자에게 숨겨진 매력이란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한다.

내년은 비상하는 옹미 해로 그것도 파란 용에 해당하는 청룡의 해라고 한다. 본디, 용은 상상의 동물이라고 하지